

김 철 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지도법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미 경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지도법 연구

김 철 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미 경

인 준 서

김미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합창 음악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노래 부르는 즐거움과 아름다운 화음의 묘미를 경험한다. 합창단 활동은 공동의 관심과 흥미를 가진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린이합창단의 양적부족과 지도자 양성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두 개의 어린이 합창단의 지도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합창단의 지도법과 효과를 분석하여 어린이 합창단 지도에 활용하고자 한다.

합창의 이론적 분석으로 합창의 시작, 합창의 역할 등은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합창의 세 가지 측면을 지도자 측면과 음악적 측면,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지도자적 측면으로는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자의 특징이 있다. 지도자의 음악성을 향상 시키는 데에 선생님들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교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도자는 합창 기능연마가 주가 되지 않고 적절한 조율과 안배를 통하여 기술과 인성이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둘째, 음악적 측면으로는 시창·청음, 발성지도 합창리허설 등이 있다. 이런 음악적인 면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지도법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들의 양성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도를 활용하여 음악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자세교정, 호흡법, 발성지도, 합창리허설 등이 있다. 자세교정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

여 반복 연습 시키며 교사의 비지시적인 행동으로 연습준비나 자세교정 신호를 개발해야 한다. 호흡은 구체적 예시와 즉각적으로 교정 해 주어 복근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발성지도는 발음과 고음처리를 할 때 정확한 발음을 위해 가사낭독과 두성공명을 위해 모음을 사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합창리허설에는 파트연습과 전체연습으로 나눌 수 있다. 파트연습에서는 음악 구절을 나누는 법과 음정이 불안할 때와 소리가 될 때 지도하는 방법을 비교 설명 하였다. 전체연습에서는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화음감을 길러주는 무반주로 연습하며 소그룹으로 짝을 지어 파트연습을 한다.

셋째, 물리적 측면으로는 합창단원의 선발과 평가, 연습환경을 들 수 있다. 합창단원 선발에서는 지휘자의 일방적인 지목이나 음악적 재능으로만 선별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평가표를 통해 공정성을 두어야 한다. 쾌적한 연습환경을 위한 연습실과 연습도구가 필요하며 구비되어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문제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합창교육	5
2. 합창지도자의 자질	7
3. 합창지도법	
1) 시창·청음	8
2) 발성지도	9
3) 합창리허설	24
4) 합창 단원선발	26
4. 선행연구의 고찰	2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33
---------	----

2. 연구도구	34
3. 연구절차	35
4. 연구 분석 방법	35

IV. 합창지도법 내용분석

1. 지도자적 측면	36
2. 음악적 측면	38
3. 물리적 측면	47

V. 결론	53
-------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Ⅱ-1〉	두성발성소리	17
〈표Ⅲ-1〉	올바른 소리와 올바르지 못한 소리 비교	19
〈표Ⅳ-1〉	연구관찰 기준표	34
〈표Ⅳ-1〉	지도자측면 관찰표	36
〈표Ⅳ-2〉	자세·호흡 지도방법 비교표	40
〈표Ⅳ-3〉	발성지도방법 비교표	43
〈표Ⅳ-4〉	파트연습 관찰표	45
〈표Ⅳ-5〉	전체연습 관찰표	46
〈표Ⅳ-6〉	물리적 요건 관찰표	48
〈표Ⅳ-7〉	오디션, 개인평가표 관계	50
〈표Ⅳ-8〉	연습도구표	51
〈표Ⅳ-9〉	연습환경 비교표	52
〈표Ⅴ-1〉	연구내용 비교표	54

그 림 목 차

〈그림Ⅱ-1〉	바른 자세	10
〈그림Ⅱ-2〉	올바른 호흡법	13
〈그림Ⅱ-3〉	호흡 시 근육의 운동	15
〈그림Ⅱ-4〉	노래 평가표	27
〈그림Ⅳ-1〉	실수하기 쉬운 호흡법	42
〈그림Ⅳ-2〉	손 기호 사용법	46
〈그림Ⅳ-3〉	A합창단의 성악 평가표	50

악보 목차

<악보 II-1>	포인트연습	20
<악보 II-2>	허밍연습	20
<악보 II-3>	비강공명연습	21
<악보 II-4>	두성공명연습	21
<악보 II-5>	모음연습	21
<악보 II-6>	연구개연습	22
<악보 II-7>	스타카토연습	22
<악보 II-8>	레가토연습 I	23
<악보 II-9>	레가토연습 II	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생활화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음악은 음을 소재로 한 표현예술이다. 여러 가지 음악활동 중 ‘노래’는 사람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음악적 활동의 실례로 합창단 활동은 지휘자의 체계적인 합창지도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하게 하며 음악을 생활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음악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의 한 장르인 합창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합창 지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종국 교수는 “어린이들에게 가창으로 마음의 세계를 익히게 하며 호기(呼氣)와 흡기(吸氣)의 연속에서 심폐(心肺)기능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진동(振動)과 공명(共鳴)으로 후두(喉頭)의 성장을 촉진케 하며 나아가서 건강한 정신과 활달한 마음으로 건강한 인간성을 자아내게 한다”¹⁾고 하였다.

이동훈 교수에 의하면 아동의 9~12살 시기가 놀이를 통해 음악이나 보편적인 음악 수업 이상의 것을 소화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

1) 이종국, 「가창의 중요성과 지도법」, (서울 : 문예진흥원, 1986), p.20

기²⁾임을 강조한다.

김경희 교수에 의하면 “합창은 음악 시간의 일부로서 부르는 행위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안내된 감상을 통한 비판적 감상 능력배양, 분석적인 음악적 사고의 계발, 음악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³⁾” 즉 합창시간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발달함으로써 음악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강조 하였다.

피아제(Jean Piaget)에 의하면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의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의 중기 및 후기에 해당하는데 3~4학년 어린이들은 음감과 리듬감이 일생 중 가장 예민한 시기이며 5~6학년 어린이들은 특히 화음 감지력이 향상되고 그 이해가 크게 증진” 된다고⁴⁾ 한다. 청음감이 가장 예민하고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되며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통해 화음의 형성과정과 그 속성 및 기능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음악적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합창은 음악적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화성감, 음정감을 길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합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협동심이 길러지는 등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음악활동이다.⁵⁾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음악

2) 이동훈, 「소년소녀 합창지도법」, (서울 : 동진음악출판사, 1998), p.4

3) 김경희, 「아동합창 교육의 범위와 방법론」, (서울 : 음악교육연구 제5집, 1996), p1

4)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3), p.270

5) 양미향, 「가락악기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초등학교 합창지도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4.

적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데 가창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합창단 활동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격변하는 문화홍수 속에서 분별없이 들어오는 대중음악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편향성을 갖게 만든다. 그러한 점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은 음악의 편향성을 균형 있게 교육시키며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합창단 활동으로 인해 어린이는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케 해주고 음악성을 풍부하게 하여 지휘자의 체계적인 합창지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창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적으로 합창지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부족과 양성교육 미흡의 문제를⁶⁾ 안고 있다. 바른 자세 갖추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자세는 흐트러지고 올바른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리는 초점이 없거나 좋은 고음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지도법의 계승과 발전이 미흡하여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본 연구자는 어린이들이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합창단 활동은 중요하다고 여긴다. 합창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서로의 음악을 즐기며 하나의 완성된 음악으로 공유해 가기에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합창단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감수성과 흥미 유발을 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6) 차영희, 「합창 지도의 실제와 리허설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1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체계적인 어린이 합창단의 지도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각각의 특색을 살펴보고, 지도법의 이론 및 실제 지도방법들을 관찰한 내용으로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인 합창지도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첫째, 참관한 합창단의 합창지도 관찰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둘째, 두개의 합창단의 합창지도법에 유용한 지도 자료는 무엇인가?
셋째, 각 합창단의 지도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점을 제시 할 수 있는가?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논문은 합창지도법 연구로서 음악과 활동영역에서 가장중심인 합창지도법 연구로서 연구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비교대상인 두개의 어린이 합창단들은 기독교, 천주교 사립 단체인 합창단 추진목적과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셋째, 합창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우려 되어 익명으로 표기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합창교육

1) 합창교육의 시작

최초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1838년에 음악을 정규교과로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17세기 교회찬송음악의 수준과 질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노래학교’ 운동 때문이었다. 노래교사는 도시와 시골을 순회하면서 노래를 가르쳤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학교나 교회, 집, 주막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열렸다. 노래배우기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허용되었으며 노래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수업료를 부담했고 교사들은 노래책을 팔아서 부가 수입을 얻었다. 노래학교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평판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즐겼고 음악을 배우고 함께 노래 부름으로써 형성되는 유쾌한 사회적 분위기를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노래학교는 음악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노래학교는 현대의 음악을 청소년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데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838년 이래 연주 지도를 통해 합창단이 육성되었고 교사들은 매우 성공적인 음악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음악이 공교육 구조 속의 정식 교과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악교육이 성인 대중으로 하여금 음악을 작곡하거나 감상하고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음악 교육자들은 음악 자체의 교육에 항상 충실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와서부터 음악교육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을 즐기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이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⁷⁾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어 음악교육의 정당성을 확인시켰다.

2) 어린이 합창단 역할

어린이 합창교육은 단지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사회성, 협동성 및 이타적인 이해심 등을 길러내어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정의적 교육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 합창을 통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그 방법을 익히고, 감상, 표현, 음악과 관계된 지식, 악보 보고 노래 부르기, 악보 읽는 능력 등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발달함으로써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이 필요하다.

둘째, 합창단은 공동의 흥미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자주적인 집단으로서 자주성, 사회성, 협동심을 육성하고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 이어야 한다.

셋째, 합창단이라는 집단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시대, 지역, 문화의 합창곡을 통해 광범위한 음악적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시대적 안목과 타문화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혀 새로운 장르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⁸⁾

7) Michael L. Mark,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공역, 「현대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p.18

8) 조인실 「소그룹 합창을 활용한 효과적인 합창부의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6

2. 합창지도자의 자질

성공적인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합창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좋은 귀”를 들 수 있다. 좋은 귀란 분명하고 예리하게 그 음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한다. 지휘자는 좋은 귀를 가지고 악곡을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를 통해 그 음악과 친밀해져야 한다. 남의 것을 어색한 모습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닌 완전 자신의 것을 연주하듯이 하여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좋은 귀로 듣고 정확한 발음과 모양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정확한 음을 내는 것도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⁹⁾

둘째, 합창지도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컨트롤해야 하므로 성악적 지식을 갖고 성부의 화음 균형, 음정, 리듬, 조화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합창의 여러 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강하거나, 약하든지 각 성부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음정이 틀리는지 또는 목소리가 튀어 나오는지, 리듬으로 인해 템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지, 음색이 잘 어울리는지 등을 듣고 판단하여 고쳐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⁰⁾

셋째, 악곡을 분석 할 때는 가사의 내용, 발음, 가사전달, 음악사적 지식, 음악적 진행 등과 같은 연구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합창지도자는 연습 전에 먼저 지휘해야 할 작품을 피아노로 치고 합창의 모든 파트를 여러번 되풀이하여 부르고 각 멜로디의 진행 등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¹¹⁾

9) 장영민, 「지휘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3

10) 최훈차, 「합창지휘법」, (호산나음악사, 1998), p.16

3. 합창지도법

1) 시창·청음

① 연습방법

어린이 합창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래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음악성 계발이기 때문에 악보를 읽는 행위는 독립적인 음악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시창이란 “처음으로 대하는 곳의 리듬이나 고정감을 악기나 교사 등의 도움 없이 악보를 보고 부르는 방법”¹²⁾으로서 ‘이동도법으로 부르기’와 ‘고정도법으로 부르기’가 있다. 전자는 상대 음감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절대 음감을 기초로 하는 시창법이다. 정확한 리듬 감각과 음정 감각을 전제로 하는 시창 능력은 연습에 의해 나아질 수 있다.¹³⁾ 그리고 악보를 잘 읽기 위해서는 음에 대한 사고력과 기보를 정확하게 다루는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¹⁴⁾ 그러므로 시창 학습은 청음 학습과 병행하고 짧은 선율형의 패턴으로 인지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청음이란 “리듬·멜로디·하모니 등을 듣고 그것을 악보에 받아쓰는 것”¹⁵⁾으로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 중의 하나이다.

이동훈은 “청음능력은 어릴 때 쉽게 이루어지며, 많은 음악적 경험

11) Holst. I, 윤학원 역, 「합창지휘입문」,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76), p.40

12) 삼호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용어사전」, (서울 : 삼호출판사, 1989), p.228

13) 이동훈, 「합창지도법」, (서울 : 동진음악출판사, 1998), p.19

14) Charles Leonhard & Robert W. House, 안미자(역),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개정판,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p.294

15) 삼호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전계서, p. 353

이 청음의 발달을 돕는다.”¹⁶⁾고 하여 어린이에게 청음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유년기의 청각일 때 발달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곧잘 절대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7,8세에서 11,12세까지의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¹⁷⁾

2) 발성지도

① 자세

자세는 마치 도화지가 흔들리지 않게 종이의 위치를 잡아 주기 위한 이젤과 같다. 이젤의 사용처럼 자세는 좋은 발성을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모든 합창지휘자는 어린이에게 바른 자세를 갖도록 선생님과 처음 만날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연습 전 합창단에서는 먼저 목, 어깨, 허리, 등을 풀어 주면서 시작한다. 다음은 양팔과 어깨에 힘을 빼고 아래로 내려 완전히 긴장을 풀고, 아래턱 역시 긴장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발과 뒤꿈치로 몸 전체의 균형을 잡게 한다.

여기서 발은 가볍게 V자형으로 벌리고 한쪽발이 다른 쪽 앞꿈치 보다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세가 좋다.¹⁸⁾

다리는 몸을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게 유연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¹⁹⁾ 허리와 엉덩이는 발끝

16) 이동훈, 「합창지도법」, 전개서, p.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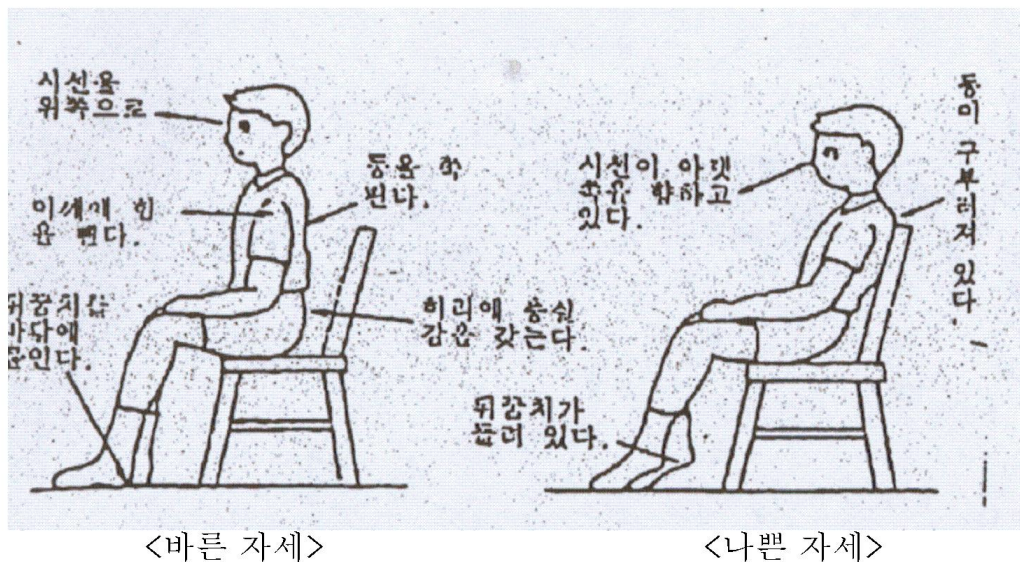
17) 문영일, 「발성과 공명」, (서울 : 靑佑, 1984), p.153

18) 김춘호, 「어린이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발성연구」, 미간행,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6

에서 머리를 잇는 직선상에 놓이도록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²⁰⁾ 가슴은 편안한 상태에서 위로 당겨져 있어야 하며²¹⁾ 등과 턱 근육도 힘을 빼며 자연스럽게 놓고 시선은 15° 위를 향해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머리는 인후와 구강의 공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몸의 나머지 부분이 이루는 일직선상에 똑바로 놓여 있어야 한다.²²⁾

다음은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의 그림이다.

<그림 II-1> 바른 자세



다음으로는 좋은 자세를 돕기 위해서는 신체의 유연성과 긴장완화를 위한 신체적 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몸과 마음이 서로 협력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신체의 감각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신체적

19) 이택희, 「가창발성법」, (서울 : 기독교음악사, 1986), p.21

20) Lisa Roma, 오현명 역, 「발성의 과학과 기법」, (서울 : 음악예술사, 1987), p.57

21) 유병무, 「교회음악 통권2호」, (서울 : 교회음악사, 1975), p.16

22) 강신의, 「소년 소녀 합창 지도법」, (서울 : 정음서림, 1980), pp.15~16

활동은 몸의 공명기관을 열도록 하며 호흡기관의 주요한 근육, 즉 횡격막, 복부, 근육 등을 강화시킨다. 연습 전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도 좋을 것이다.

1. 바닥에 누워서 등을 지그시 누르듯이 온몸을 편다.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몸을 쪽 펼쳐지면서 몸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2. 두 그룹으로 만들어 각 짝을 만든 다음, 두 사람이 각 조를 이루어 서로 등을 맞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똑 같이 민다.
3. 기타 맷돌 갈기, 네 발로 기기,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기, 개구리 점프하기 등이 있다.²³⁾

위와 같은 동작들은 강한 운동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해서 가볍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②호흡법

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자세와 호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래하는 사람은 견고한 땅에 의지하고 두 발로 서 있듯이 자신의 호흡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떨리고 억제되지 않는 호흡은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는 흔들리는 기초와 같다.²⁴⁾바른 호흡은 풍부한 울림과 통일된 음색을 유지하며 좋은 합창소리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

노래를 할 때는 늑골호흡과 복식호흡을 동시에 사용한다. 늑골호흡이

23) F. Hassemann and W. Ehmann, voice Building for Choirs, 김도수 역, 「합창발성의 실제」, (서울 : 미완성출판사, 1994), p.9

24) Enrico Caruso and Lusia Terazzini, Caruso and Terazzini on THE ART O SINGING, 손덕호 역, 「카루소와 테트라찌니의 발성법」, (서울 : 청우출판사, 1995), p.100

란 늑골²⁵⁾의 사이에 있는 외늑간 근육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늑골이 들려 올려지게 되고 흉강²⁶⁾이 확대되어 숨을 들이 쉬게 되는 것이다. 즉 숨을 들이마실 때 겨드랑이 밑의 양 옆구리에 손을 얹으면 양손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늑골호흡을 한다는 증거이다.

사람의 호흡은 뇌→ 횡격막수축→ 흉곽²⁷⁾확장→ 폐의 팽창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횡격막 호흡 즉 복식호흡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수축이 될 때 횡격막²⁸⁾은 밑으로 내려가 편평해지며 복강 내의 여러 장기가 전하방으로 눌리어져서 복부가 팽윤되어 앞으로 나오게 되고 숨을 내쉬면(날숨) 다시 횡격막이 원상태로 복원되고(다시 제 위치로 약간 올라간다) 복부의 팽윤도 감퇴되어지는 것을 말한다.²⁹⁾ 횡격막은 숨을 들이 쉴 때 관여하는 근육으로써 호흡에 아주 중요한 근육인 것은 사실이지만 횡격막의 운동만으로는 호흡이 충분하지 못하다. 앞서 말했듯이 더욱 충분한 호흡을 얻기 위해서는 늑골(갈비뼈)의 힘을 빌려야 한다.

다음은 횡격막 호흡과 늑골호흡의 그림이다.³⁰⁾

25) 늑골 : 좌우 12쌍의 가늘며 납작한 긴 뼈

26) 흉강 : 가슴 속, 흉곽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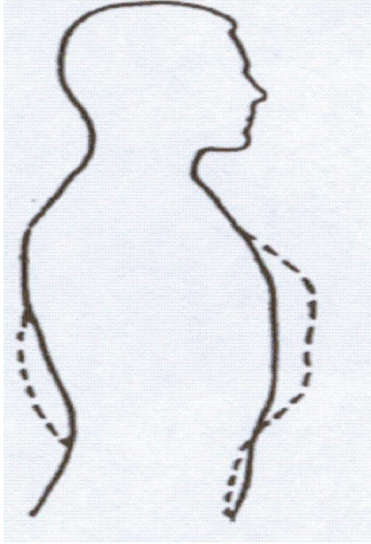
27) 흉곽 :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골격, 흉추, 늑골로 이루어짐

28) 횡격막 : 흉강과 복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은 근육, 반은 인대로 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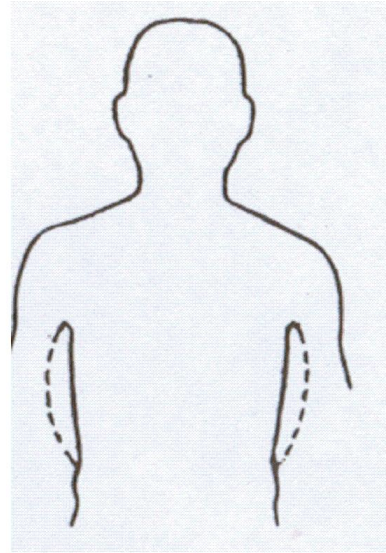
29) 김혜정, 「성악박사 김혜정의 발성법 강의노트」, (서울 : 작은 우리, 1997), pp.91~92

30) Ivan Trusler. Walten Ehret 공저, 전성환역, 「성악의 기능적 훈련」, (서울 : 음악춘추사, 1999), p.14

<그림 II-2> 올바른 호흡법



<횡격막호흡>



<늑골호흡>

다음으로는 바른 호흡을 하기 위한 호흡 방법과 호흡 할 때 복근의 근육 사용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 호흡을 위해 하세만(Hasseman)이 제안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¹⁾

1.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자세에서 들숨 시에는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날숨 시에는 양팔을 다시 아래로 내린다.
2. 한손은 상 복부 위에 놓고, 다른 한 손의 엄지는 옆구리에 네 손가락은 등위에 놓은 자세에서 호흡할 때 횡격막 부근의 근육 반응을 살펴본다. 양손을 댄 부근은 들숨 시에 방사형으로 둥글게 팽창되어 호흡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31) F. Hasseman and W. Ehmann, voice Building for Choirs, 김도수 역, 「합창발성의 실제」, (서울 : 미완성출판사, 1994), pp.20~21

3. 하품하기, 한숨짓기, 웃기 등을 실습하여 본다.

예를 들어 하하하(간드러지는 웃음) - 헤헤헤(경박한 웃음) - 야하하 하(신경질적 웃음) - 히히히(낄낄거리는 웃음) - 후후후(억누르는 웃음) - 호호(유쾌한 웃음) 등의 웃음을 이용한다.

4. 진한 장미꽃 향기를 흠뻑 들이마신다.

5. 먹음직스런 복숭아 향기를 맡거나, 먹을 때에 호흡기관의 근육들을 최대한 이용한다.

두 번째, 호흡을 위한 횡격막 근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²⁾

1.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배에 2~3권의 책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쉴 때에 책이 올라가게 하고 내쉴 때 책이 내려가게 한다.

2.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인 후 양 손바닥을 복부 쪽 옆구리에 대고 숨을 들이쉴 때 근육이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3. 2번에서 근육이 팽창할 때 숨을 10초간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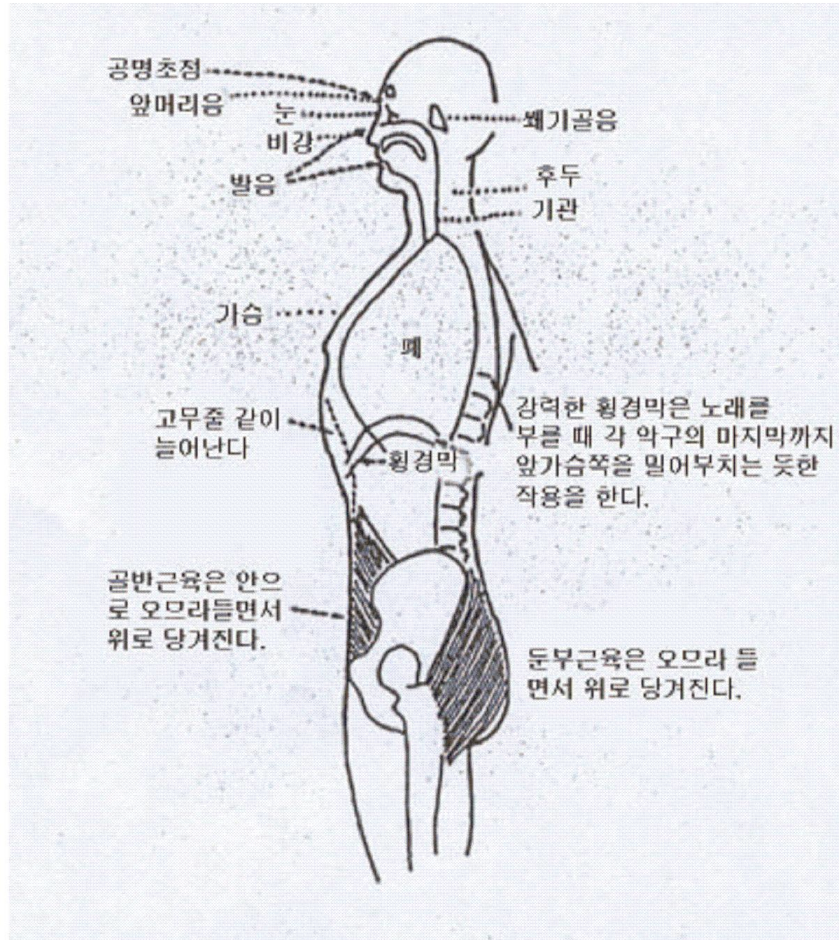
4. 개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숨을 매우 짧게 내쉬고 들이 마신다.

다음은 호흡 시 근육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이다.³³⁾

32) 박용기, 「아동합창 발성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p.17

33) Lisa Roma, 오현명 역, 「발성의 과학과 기법」, (서울 : 음악춘추사, 1973), p.52

<그림 II-3> 호흡 시 신체근육의 작용



③ 발성연습

성대에서 일어나는 그대로의 소리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 공명체에 잘 공명시켜 소리가 울리게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발견해내고 그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발성 공부의 하나이다.

발성에는 흉성발성과 두성발성이 있는데 흉성발성은 흉성구의 진동 양식으로 나오는 발성이며 두성발성은 두성구의 진동 양식으로 나오는 발성이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할 때는 성구를 흉성구와 두성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거나 흉성구와 중성구, 두성구의 세부분으로 나눈다.

흉성발성으로 두성구의 음을 내면 고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성대에 무리가 간다. 반대로 두성발성으로 흉성구의 음을 내면 음량이 작고 소리의 윤기와 탄력성은 없지만 성대를 보호할 수 있고 음색의 변화가 없어 자연스러운 소리로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가 있다.

또한 두성발성은 흉성발성에 비해 긴장감과 피로도가 적으며 가창 시에 성대의 조정이 자유로워 음정이나 리듬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으며 아름답고 밝은 느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³⁴⁾ 그러므로 예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가창하기 위해서는 두성발성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두성발성에 의해 잘 다듬어진 어린이 소리의 장점이다.³⁵⁾

34) 변정자, 「음악·교육 및 이론과 실제」, (서울 : 삼호출판사, 1988), p.38

35) 이동훈, 「합창지도법」, (서울 : 동진출판사, 1997), p.212

<표Ⅱ-1> 두성발성소리

- 소리가 가볍다.
- 소리가 멀리 전달된다.
- 비브라토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소리가 순수하다.
- 소리에 초점이 있다.
- 소리에 생동감과 적당한 탄력이 있다.
- 울림이 좋다.
- 음정이 정확하다.
- 음색이 맑고 깨끗하다.
- 노래할 때 몸에 긴장이 생기지 않는다.
- 음역이 매우 넓다.

이러한 두성발성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허밍연습의 효력은 대단한데, 위대한 성악가인 카루소(Enrico Caruso)³⁶⁾도 “많은 성악가 입을 다물고 매일 연습을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연습이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그 훈련을 인정하고 있다. 올바른 허밍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손가락 두개 정도의 간격을 둔 후 양 입술을 다물고 ‘u’ 를 발음하는 입 모양으로 혀를 내리고 연구개를 비강 쪽으로 들고 소리를 비강 상부(양 눈의 중앙)에 집중시킨다는 기분으로 연습시켜야 한다. 또한 허밍연습 시에는 ‘n’ 음보다 ‘m’ 음이 좋은데 ‘m’ 음은 혀를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n’ 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를 경구개의 상치

36) Enrico Caruso(1873~1921)는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명 테너로서 화려한 음색, 풍부한 음량,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사상 최대의 명성을 떨쳤으며 또한 레파토리가 광범위한 점에서 도 희귀한 존재였다. 표준음악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7), p.749

바로 다음 부위에 힘껏 접촉시킨 다음 모음을 내기 위하여 혀를 입의 아래쪽으로 내려야 한다. 아동의 두성발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아동이 두성이 아니고는 낼 수 없는 고음부터 점차 하강하는 음계 혹은 선율로 연습하도록 시킨다. 그런데 이때 턱이나 인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³⁷⁾

Hans Toachin Moser는 어린이들에게 발성을 지도할 때 “소리는 음질의 개선에 있지 음량의 증대에 있지 않다”³⁸⁾라고 하여 발성은 소리의 비중에 있으며 강도의 요구에 있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Erich Steffen은 “우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하며 어린이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피해야한다”³⁹⁾고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고 옆 사람에게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써 불러라. 이 작은 소리로부터 출발한 소리가 합창의 기초가 되며 가사를 표현하며 즐겁게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발성연습에 있어서 음량의 강조보다 음질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올바른 어린이발성과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올바른지 못한 어린이의 성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37) 남희, 「어린이를 위한 합창 발성법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지휘전공 석사논문, 2001, pp. 26~28

38) 초친당응, 최신음악교육학, (동경 : 음악 지우사, 1952), p.116

39) 초친당응, 상계서, p.117

40) 남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p.4

<표 II -2> 올바른 소리와 올바르지 못한 소리의 비교

올바른 소리	올바르지 못한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맑은 소리 · 가는 소리 ·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 · 앞으로 나오는 공명된소리 · 쉽게 pp를 낼 수 있는 소리 · 잘 어울리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이 쉬고 헛숨이 새는 소리 · 굵은 소리 · 소리가 갈라지고 고풍지르는 소리 · 뒤로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어서 나오는 공명이 안 된 소리 ·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나오는 소리 · 어울리지 않는 소리

위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크고 무리되지 않는 발성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지도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는 효과적인 발성연습의 실례를 든 것이다.⁴¹⁾

① 앞쪽으로 소리붙이기

목소리를 열어 소리를 앞으로 뽑아내는 것은 소리의 발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먼저 앞으로 붙여 소리를 앞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 ‘m’ 을 낼 때, 입술에 힘을 빼고 아랫니와 윗니의 간격을 약간 떨어 뜨린다.
- ◆ ‘m’ 의 울림이 모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⁴²⁾
- ◆ ‘m’ 의 소리의 울림으로 ‘i’ 의 소리 울림이 앞쪽에서 나도록 유도한다.⁴³⁾

41) 남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pp.33~42

42) Clarence Sloat, "Introduction to Phonology", (Englewood Cliffs : Entice-Hall,1978), pp.37~42

43) 노수채, 「발성에 있어서 Vocalizzi 연구」,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 학술 진흥재단, 1992), p.4

<악보 II-1> 포인트 연습



◆ 허밍을 통하여 소리를 앞쪽으로 붙이며 울림을 느껴 본다.

<악보 II-2> 허밍연습



② 비강 공명 갖기

비강을 잘 활용하면 소리는 윤기를 띠고 또 소리가 잘 공명되어 울림을 얻게 된다. 코는 장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최대한 넓게 열려져야 하며 상비강쪽을 잘 활용하여야 듣기에 거북한 콧소리가 되지 않는다.

◆ 비음 ‘n’, ‘m’ 을 사용하여 연습한다.

◆ 울림을 붙이는 “하강 음계” 44)을 사용한다.

44) Victor Fuchs, 이상훈 역, 「발성기법」, (서울 : 세광출판사, 1981), p.47

- ◆ 복근의 움직임에 포착하기 위하여 낮은 음역을 사용하고, 저음에서 고음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하강음계를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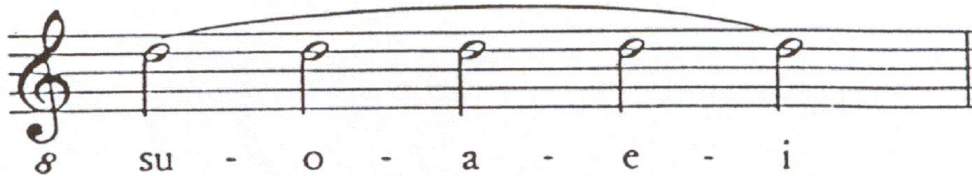
<악보 II-3> 비강공명연습



③ 두성공명 갖기

- ◆ ‘후’ 발음 시 소리가 입술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 발음처럼 두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악보 II-4> 두성공명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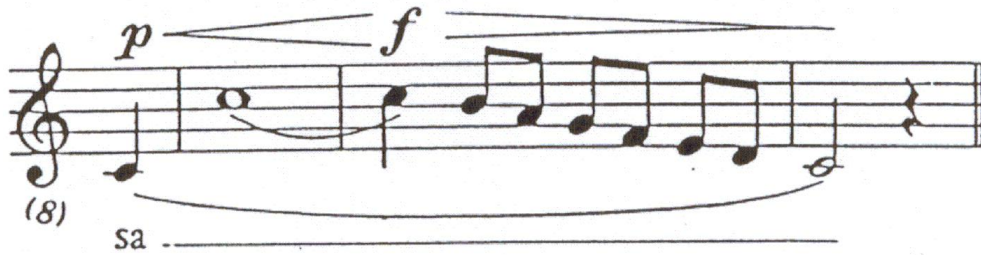
- ◆ 두성공명을 생각하며 소리가 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밝은 ‘a’ 로 둥글게 모음을 낸다.

<악보 II-5> 모음연습



◆ 혀를 아랫니 아래에 가볍게 대고 목안을 열어 소리를 연구개로 보낸다.

<악보 II-6> 연구개연습



④ 고음연습

◆ 높은 가락을 노래할 때 상체를 앞으로 굽혀 허리의 힘을 이용한다.

음이 내려 갈 때는 음정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다.

◆ 고음을 노래할 때 횡격막을 팽창시킨다. 이때 낮은 음에 호흡이 많이 나가면 고음에서 노래하기가 힘들다.

◆ 낮은음에서 고음까지 일직선으로 소리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노래한다.

<악보 II-7> 스타카토연습



⑤ 레가토연습

- ◆ 호흡량을 조절하여 노래를 부른다. 고음에 액센트를 주어 고음의 효과를 살리고 내려오는 음색이 어둡지 않게 한다.

<악보Ⅱ-8> 레가토연습 I



- ◆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연결하는 연습으로 스타카토를 할 때 긴장되게 그리고 레가토를 할 때에는 배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악보Ⅱ-9> 레가토연습 II



3. 합창리허설

① 파트연습

파트연습으로는 조화와 균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체 리허설에서는 무시되거나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프레이징과 기초적 음악성을 가르칠 수 있다.⁴⁵⁾

파트연습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곡의 템포와 곡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둘째, 각 파트별 초견 능력은 독보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악보를 먼저 마음속으로 읽어보게 한 다음 자기 파트의 초견으로 시창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

셋째, 곡의 흐름과 템포를 알기 위해 멜로디를 단원 전체가 제창해 보도록 한다.

넷째,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는 자신의 파트의 선율을 노래하거나 허밍해 보도록 한다.

다섯째, 연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반복 연습을 할 때 확인하며 노래하도록 한다.

여섯째, 피아노 부분은 반주만 듣고 곡의 흐름과 음악의 형태를 느끼게 한다.

일곱째, 어려운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시간에 연습시킨다.

여덟째, 파트연습을 많이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악보를 읽는 연습을 반복하여 짧은 시간에 곡을 익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홉째, 파트연습 할 때부터 지휘자와 같이 하는 연습을 한다.⁴⁶⁾

45) 이은아, 「합창지도법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25

② 전체연습

전체연습은 연주할 장소에서 연습해 볼 수 있고 연주 시에 들려질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밸런스(balance), 브렌딩, 화음 및 가사전달 등의 소리의 울림을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지도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 소리를 통일해야 한다. 소리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창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제창은 음정의 고저에 대한 감각을 의지하게 되며, 각 성부마다 통일된 제창이 어우러질 때 합창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 단원 한 사람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튀어 나올 때 더 제창 연습에 힘써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합하여 내는 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공명이 되어 울리는 소리어야 한다.⁴⁷⁾

둘째, 합창단 인원조절 및 좌석 배치이다. 인원 조절은 지휘자가 원하는 합창단의 음색이나 구성 멤버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단지 배음의 원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배음이란 하나의 음을 진동시켰을 때 다른 약한 음이 차례로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각 성부의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 합창의 소리를 다르게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연주자들에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셋째, 화음감을 통한 연습이다. 화성의 진행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한 필수이다.⁴⁸⁾

46) 최훈차, 「합창지휘법」, (서울 : 호산나음악사, 1998), p.83

47) 최훈차, 「합창지휘법」, (서울 : 호산나음악사, 1998), p.76

48) 차영희, 「합창지도의 실제와 리허설에 관한 연구」, (서울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4), p.24

4) 합창단원 선발

어린이들은 특별 그룹이나 활동에 속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학년은 단지 재미를 위해 그룹에 속하는 반면, 고학년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단체에 속한다. 그들이 무엇이든 하기 이전에 무엇을, 언제, 왜 할 것인지 알기 원한다.

어린 단원을 모집 할 때 전통과 명예는 매우 유용한 요인이다. 학교 합창단이 몇 년 동안 탄탄한 연주를 가졌으면 아이들은 “해야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참여하길 원할 것이다.⁴⁹⁾

① 평가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학생들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평가는 학생과 선생님에게 모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학생의 현재 능력, 문제점과 가능성을 찾아내어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 고쳐야 할 점, 혹은 새로 도전해야 할 점을 알려⁵⁰⁾ 줄 수 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9) 이동훈, 「소년 소녀 합창지도법」, (서울 : 동진출판사), 1998, p.19

50) 이동훈, 전계서, p.34

평가방법으로는 음역과 음정의 정확성⁵¹⁾, 선율의 기억력, 시창, 화음 노래 부르기,⁵²⁾ 음질⁵³⁾등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동훈 박사의 평가표로서 오디션을 볼 때 어린이들의 음악적 지식과 선호도와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자료이다.

참고 자료로 평가표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II-4> 노래 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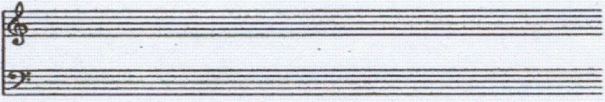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학년,반 _____

노래 인터뷰


1. 합창단이나 성가대와 같은 단체에서 노래해본 경험이 있는가? _____
있다면, _____ 언제? _____ 어디서?

2. 악기를 배운 적이 있는가? _____
무슨 악기? _____ 얼마 동안? _____ 누구한테?

3. 음역



4. 음정의 정확성: O G F N



5. 선율 기억력: O G F N

6. 시창: O G F N

7. 화음 노래 부르기: O G F N

8. 음질:

9. 전체적인 평가:

O=Outstanding G=Good F=Fair N=Needs improvement

51) 음정의 정확성 : 음정들을 피아노로 치거나 부른 후 학생에게 그 음정을 따라 부르도록 요구 하는 것

52) 화음 노래 부르기 :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2중창곡을 선생님이 주선율을 부르고 학생에게 화음 부분을 부르라고 하든지 또는 반대로 시켜보는 것

53) 이동훈, 「소년 소녀 합창지도법」, (서울 : 동진출판사, 1998), p.35

1. 인터뷰: 합창부원 선발에 있어서 처음부터 무조건 노래부터 시키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합창에 대한 관심도, 인품 등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에 합창을 해 본 경험은 있는지, 악기를 다루어 본 적이 있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관심도와 말하는 태도로 개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2. 음역: “룰룰루” , “아아아” 등의 발음으로 2도씩 옮겨가며 노래하게 하여 고음과 저음의 음역을 기록한다.
3. 음정의 정확성: 음정을 들려주고 그때마다 그것을 “아” 로 노래하게 한다.
4. 선율기억력: 짧은 선율을 2, 3개치고 어린이에게 “아” 로 노래하게 한다.
5. 시창: 시창을 위한 짧은 선율을 선택하여 절대음 또는 상대음의 시창을 보도록 한다.
6. 화음 노래 부르기: 간단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교사가 다른 성부를 노래하게 하든지 또는 반대로 시켜본다.
7. 음질: 음색, 울림, 음향, 음정의 정확도를 유의해서 듣고 기록한다.
8. 전체적인 평가: 장점이나 단점을 보완해야 할 점을 적어둔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기존의 합창지도에 관한 연구는 합창 발생법에 관한 연구와 효율적인 합창지도 방안연구 등이 많았다. 예전 연구에는 이론적 지식 연구에만 집중된 반면에 현재에는 실제 활용 방안과 효율적 연구 방안으로 지도안을 짜놓은 자료들이 제시 되어 있었다.

김이경의 “효율적인 합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합창 음악의 지휘에 대한 연구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합창 연주를 위한 연습기술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⁵⁴⁾

위 논문은 합창인구의 저 변화와 급격히 늘어나는 각종 합창단의 양적증가에 대처하여 질적 향상을 위해 잘 훈련된 합창지휘자가 요구되므로 지휘자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 되어지는 음악요소와 자기반성과 함께 성공적인 합창단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으로는 합창의 정의, 발생의 실제적인 훈련, 지휘자의 조건, 합창단원의 조건, 음악 해석의 여러 요소, 합창 음악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합창연주를 위한 연주기술 및 방법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 하였다. 아울러 합창 음악 지휘의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를 비교 분석 하기도 하였다.

박은정의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위한 지도방안” 논문은 여러 해 동안의 어린이 합창단 지도의 경험으로 신입 합창단원의 지도를 위

54) 김이경, 「효율적인 합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한 단계적 지도안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신입 합창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⁵⁵⁾

신입 어린이 합창 단원의 실제 지도에서 1998년 경주 YWCA 어린이 합창단의 신입단원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2회로 지도 하였다. 테스트 과정 중 음정에 있어서 2도와 3도 음정을 저음역과 고음역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한 결과 저음역에서는 30명 전원이 무난하게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었으나, 고음역에서는 호흡의 정확한 뒷받침이 어울리지 않는 7명의 단원들이 잘 되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도약음정에서는 2~6도까지는 2명의 단원이 7~8도까지는 9명의 단원이 잘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음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노래하는 음정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느린 속도에서 충분한 음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세와 호흡이 바를 경우에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자세와 호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 연구는 테스트 결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합창지도에 있어서 테스트로 인해 신입 단원의 능력을 파악 한 후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할 때 필요 없는 곳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됨을 강조하였다.

임두현의 “효율적인 합창지도와 경영에 관한연구” 논문은 성공적인 합창에서는 합창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음악적 지식과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로 리더십, 음악성, 음악사 및 음악이론의 공부, 피아노연주와 시창능력에 대하여 제시함으로 지도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⁵⁶⁾

55) 박은정,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위한 지도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위 논문의 내용으로는 합창 지휘자가 지녀야 할 지도력, 소리와 노래 만드는 방법, 성공적인 합창연주를 위한 기술방법과 합창단 경영을 위한 행정방법 등을 제시 하면서 합창지도자의 자질과 합창단의 구성방법, 성공적인 합창을 위한 기술, 합창단 경영 즉 음악행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훌륭한 합창지도를 하기 위한 지도법과 경영법을 제시 하였다. 올바른 합창지도법에서는 합창 할 때의 자세와 호흡법, 가사를 발음하는 방법과 각 성부마다의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노래 만들기에서는 각 성부의 소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화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프레이즈를 나누는 방법과 합창단 전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 즉 제창연습을 비롯하여 배음과 화음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연습을 제시하였다. 음악의 다이내믹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악상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또한 각 성부를 어떠한 좌석으로 배치해야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와 개인 능력에 따라서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곡의 선정이나 연습, 좌석 배치 등의 모든 것에서 합창단의 수준과 형편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합창단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휘자의 바른 판단과 주의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남 희의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합창발성법에 관한연구” 논문은 어린이 발성지도에 후두와 공명강 위치가 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들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맞는 발성지도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연습을 제시 하였다.⁵⁷⁾

56) 임두현, 「효율적인 합창지도와 경영에 관한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위 논문은 효과적인 어린이 합창 발성의 실제로서, 두성발성을 전제로 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와 호흡법을 제시하고 동시에 공명과 발음 지도의 훈련을 병행하여 아름다운 합창의 소리를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어린이 발성의 제일 중요한 것은 두성발성이며 크고 풍성한 음량을 키우는 발성지도가 아님을 설명하며, 효과적이며 쉬운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이용한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고운소리와 악쓰는 소리 즉 생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알아야하며, 각양각색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음성의 발생과정과 공명확대의 변화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두성발성의 연습을 위해서는 ‘d’음에서 시작하는 하행음계를 사용하여 고음의 두성을 자연스럽게 저음으로 끌어내림으로서 ‘e’ 음 이하의 저성부도 두성발성으로 노래하여야 하며 두성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음과 자음을 사용 하는 것도 좋다. 즉 성대에 긴장감을 주는 ‘e’ 모음과 비강의 울림이 많은 ‘m, n’ 의 자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어린이합창지도법의 실제지도법으로 유용한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57) 남희,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합창 발성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0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자는 합창지도법의 연구로 어린이 합창계의 발전을 기여해 온 윤학원 교수님이 음악 감독으로 계신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과 카톨릭 합창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을 참관하여 관찰,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인 합창지도법을 알아가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은 1960년 8월 월드비전 창시자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으로 창단되어 1978년 영국 BBC 방송 세계 합창경연 대회에서 동양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88올림픽 개막식 연주,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를 위한 유럽 순회 연주 등 전 세계를 무대로 40년 동안 3500여 차례에 걸친 연주회를 통해 “천사의 소리”로 그 명성을 얻고 있는 합창단이다. 1990년 후반에는 선명회 합창단을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으로 개칭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으로는 카톨릭 서울대교구 소속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노래를 통한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1994년 3월에 창단된 합창단으로 현재 제 10회 정기연주회와 세계 어린이 합창제 참가, 해외연주, 특별연주와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두개의 어린이 합창단원의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중등학교 2학년 변성기 이전의 학생들이며 인원은 23~25명의 남·여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도구

두 곳의 어린이 합창단 지도법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지도자적 측면, 지도자의 음악적 성격으로 인한 음악적 측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관찰하였다. 첫째, 지도자적 측면으로는 지도자의 전공분야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음악적 측면으로는 시창·청음, 발성지도, 합창리허설과 같은 지도자의 음악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묶어서 살펴보았다. 셋째, 물리적 측면으로는 물리적인 환경요인으로 보는 합창선발방법과 평가, 연습 환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한 기준표이다.

<표Ⅲ-1> 연구 관찰 기준표

측면	관찰항목	관찰내용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전공분야 - 지도자 특성 - 지도면 - 파트면 - 교육방향면
음악적	· 시창·청음 · 자세·호흡 · 발성연습 · 합창리허설	- 연습방법 - 자세와 호흡의 설명방법 - 발음과 고음처리 - 파트연습 때 구절법, 불안한 음정과 뒤는 소리교정 - 전체연습 때 화음, 인원조절, 악곡 선택
물리적	· 합창선발 · 평가 · 연습환경	- 합창선발방법, 단원구성 - 평가방법 - 연습도구비교

3. 연구절차

이론적 배경으로 어린이 합창단의 역할, 지도자의 자질, 합창발성지도에 관한 기초 이론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참관할 합창단에서 관찰하여야 할 기준표를 작성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합창단 참관한 일시와 횟수로는 A합창단은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주일에 2회씩 4번을 참관하였고, B합창단은 7월 27일부터 9월 1일 까지 1주일에 1회씩 총 4번에 걸쳐서 참관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세계 어린이 합창제도 참관하여 연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두개의 합창단을 참관하여 관찰한 내용으로 사례를 들어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합창지도법에 관한 문헌과 논문을 통해 조사하여 서술하였고, 지도법의 실제 활용으로 지도자적인 측면과 음악적 측면,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관찰한 내용을 비교 설명하였다.

IV. 합창지도법 내용 분석

1. 지도자적 측면

1) 지도자

합창단의 지도자란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자신의 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긍심 그리고 어린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이 모든 것을 사람들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지도력 즉 리더십과 고매한 인품과 인격이 겸비되어 있어야만 이상적인 지도자라 할 것이다. 비록 이 모든 조건을 단 한번에 이루어 놓고 시작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겸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좋은 음악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지도자의 전공분야와 지도자의 특성과 지도방법, 파트배열 등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였다. 또한 각 합창단에서 아쉬웠던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내용도 제시하였다.

〈표IV-1〉 지도자적 측면 관찰표

관찰 내용	A	B
전공	성악, 작곡지휘	지휘
지도자 특성	· 음정과 리듬의 정확한 지적 과 명쾌한 음악 해석으로 인	· 악곡의 분석과 음악진행이 돋보여 다양한 레퍼토리로

	<p>하여 합창단들을 집중시키에 충분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악 전공으로 발성에 대한 민감함과 성부간의 균형에 대한 지적이 남달랐다. 	<p>음악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소리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였고 젊은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허물없이 편하게 지내는 친숙함도 느낄 수 있었다.
지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sion을 강조하여 고정도법으로 보는 훈련과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 악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개로 음악 외적요소를 강조하여 악곡분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악곡들로 반복 연습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파트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파트로 배치하기보다는 다양한 파트로 수시로 재배열하여 서로 다른 파트의 소중함을 길러 주며 화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자리배열을 하기보다는 성부간의 균형과 조화에 맞게 배치한다.

교육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자 양성의 목적이 아닌 교육반으로서, 연주가 목적이 아닌 음악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의 발성적인 애기와 악곡의 설명들이 길어 지루해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이것으로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긴 지휘자의 지도법은 훌륭하지만 지시적 설명이 너무 길어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행사가 바쁜 관계로 연주를 위한 곡 만들기에 치중되어 있었기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능이 뛰어났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음악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음악을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습득하기가 어려웠다. · 지휘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음악적 측면

1) 시창·청음

참관한 두 곳의 합창단은 단원 모두가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치고 들어온 학생들이었다. 게이름으로 악보 보고 부르기, 음 듣고 소리내기 등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시창·청음은 되어 있었다. 관찰한 내용으로는 연습방법을 비교 설명하였다.

연습방법으로는 합창단의 시창·청음실력은 B합창단보다 A합창단이 월등하게 좋았다. 게이름으로 악보를 읽고 허밍으로 불러보는 시간이 더 빨랐고, 절대음을 감지하는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창·청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합창단에 비해 A합창단은 교육반과 연주반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실력 차이는 매우 컸다. 그 이유로는 시창·청음 능력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것은 학년 차이로 인한 이해수준의 격차로 볼 수 있었기에 교육반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A합창단에서는 교육반에서 시창·청음 교육을 3그룹으로 나누어 상·중·하로 편성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20분 정도 작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음악의 기본개념을 숙지시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실력별로 3개의 반이 흩어져서 각자 그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악보 보는 법이나 게이름 읽는 법, 기보하는 법, 음 감지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이 때 하급반은 저학년과 수준이 낮은 학생들로, 악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중급반은 중학년과 고학년으로 코르위봉겐으로 악곡의 특징들을 실음 중심으로 듣고 인지하며, 상급반은 지휘자 선생님의 개별지도로 진행 되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시청·청음시간을 통해서 음악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음의 감지력을 키워 깊이 있는 학습으로 습득되어 진다.

2) 발성지도

① 자세·호흡

자세와 호흡은 기초 이론 설명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되어져야 한다. 바른 이해가 정확한 소리를 감지하고 이해시키는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합창단에서 자세·호흡을 설명하는 방법을 관찰하였다.

<표 IV-2> 자세·호흡 지도 방법 비교표

관찰 내용	A	B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표정인 비언어적 지시로 표현한다. 눈으로 발, 무릎, 손, 시선, 머리까지 지시하여 교정한다. · 교사는 수시로 체크하며 자연스럽게 습득 되도록 반복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되는 학생을 뽑아서 모델로 제시하여 그대로 모방하도록 인지 시킨다. 아이들은 배와 허리에 손을 얹고 연습을 한다. · 고음에 있어서는 발뒤꿈치를 들어서 소리를 내도록 지도 한다. 이것은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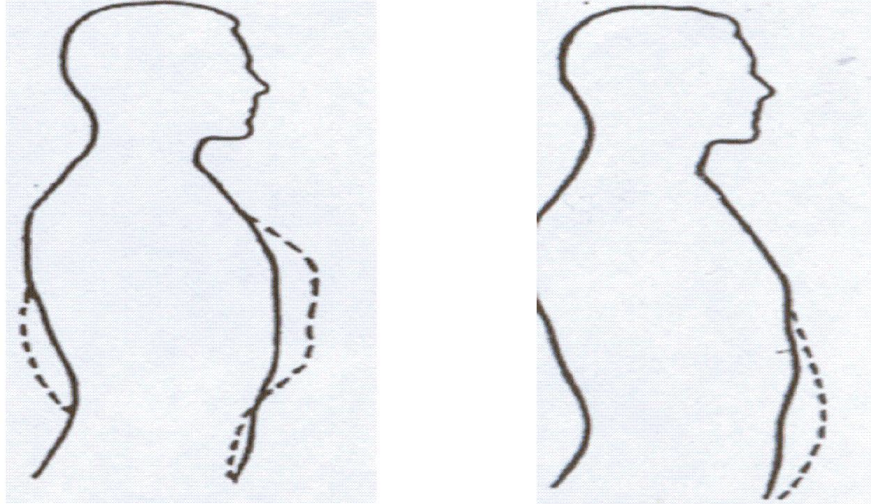
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지도 선생님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ex)물통비유- 음정이 높을 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필요 하다. · 호흡 지탱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카토 연습을 강조한다. (분할호흡법) · 섬세하게 끝음까지 호흡으로 조달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합창단을 지도했던 경력이 있기에 예시적 설명 보다는 직접 아이들에게 가서 지시 해 주며 확인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 했다. · 호흡 지도법은 신입생 때 집중적으로 지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연습시키지 않았다. · 분할박자와 허밍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호흡을 내도록 강조한다.
----	--	---

이와 같이 자세와 호흡의 지도방법을 관찰한 결과 A합창단은 지휘 선생님의 얼굴표정으로 자세 교정을 체크하는 훈련을 한다. 수없는 반복으로 자세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인지시키지만 무시해버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첫 시작은 항상 비언어적인 방식인 선생님의 표정을 사용하여 말한다. 발, 무릎, 허리, 시선, 표정을 지시하여 교정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습관적으로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B합창단은 모델을 제시하여 모방하도록 하며 자세의 통일성을 중요시 한다. 또한 자세를 교정함으로 주는 이점은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효율적인 학습으로 시작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여 실수 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⁵⁸⁾

58) Ivan Trusler. Walten Ehret 공저, 전성환역, 「성악의 기능적 훈련」, (서울 : 음악춘추사, 1999), pp.16~17

<그림Ⅳ-2> 실수하기 쉬운 호흡법



먼저 그림은 높은 가슴호흡을 말하며 다음 그림은 과도한 하위 복부 호흡을 말한다. 이 두 호흡은 올바르지 못한 호흡이며 노래하는 이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혼란을 주는 호흡에 속한다. 또한 간혹 단원들 중에 군악대장처럼 딱딱하게 버티고 서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척추를 굳게 하면 소리를 낼 때 성대에 무리가 가서 해롭게 된다. 노래 부를 때는 자유롭게 편하게 서서 가슴은 당당하게 활짝 펴고 시원한 느낌을 가지며 늑골이나 폐의 어느 부분에서도 부자연스러움이나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② 발성지도

발성지도에서는 선생님의 유·무관계와 발성지도시간을 살펴보고, 실제연습으로는 발음지도와 고음처리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비교 관찰하였다. 그 내용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3> 발성지도 비교표

관찰내용	A	B
발성선생님	유	유
발성시간	20분(시창·청음20분)	30분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가사를 낭독하도록 한다. 이 때 호흡, 음색, 톤까지도 똑같이 하도록 지도한다. · 리듬 연습도 병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의 자리를 다 같게 하도록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입 모양을 통일 하도록 지도한다.
고음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타카토와 같이 횡격막 움직임이 활발한 운동을 통해 호흡 감지력을 길러 주게 한다. · 고음일수록 두성공명을 시켜야하므로 ‘우’, ‘오’ 모음으로 소리를 둥글게 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음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턱과 목에 힘을 빼고 발뒤꿈치를 살짝 올려 가볍게 체중을 아래로 쏠리게 하여 호흡이 내려가도록 지도한다. · 등과 가슴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완시키고 힘을 빼도록 한다.

발성지도 선생님은 성악을 전공하여 대부분 어린이 합창단 지도경험이 있었고 합창단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A합창단 발성지도 선생님은 인천 시립합창단 단원이면서 어린이 합창단 지도 경험 있는 선생님이었으며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노하우와 경험이 많으며 연

습계획이 보다 체계적이었다. 먼저 자세교정과 몸 풀기로 이완시킨 다음 허밍으로 포커스 연습을 시키며 스타카토로 분할 박자에 맞춰 호흡 연습을 하고 레가토로 부드럽고 공명된 소리를 내도록 지도 하였다. 시범을 보일 때 음 높이가 정확했으며 소리모델로서 적합하였다.

단원들이 지휘 선생님과 노래를 할 때 발성선생님은 하루에 3명씩 10~15분 정도 개인 레슨을 한다. 이때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호흡 및 자세와 같은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지휘자 선생님과 소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곱고 깨끗한 소리로서 바른길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B합창단의 발성지도 선생님은 두성공명을 중요하게 여겨 허밍연습을 많이 시켰으며 손을 이용해서 손바닥 위에 소리담기, 연구개 들어올리기, 피치 높이는 연습 등을 손 모양으로 표시하면서 가르쳤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올라가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올려 복근의 힘으로 버티는 훈련을 시켰다. 시범을 보이기보다 지시적 가르침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다.

A합창단 같은 경우는 개인 레슨 시간이 단원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B합창단의 경우는 고학년 위주와 솔리스트 중심으로 개인 레슨을 하여 일년에 개인레슨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레슨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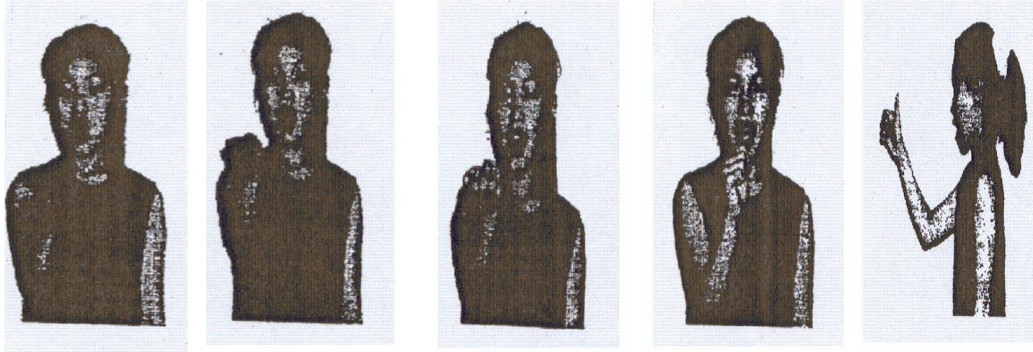
③ 파트연습

파트연습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소리의 하모니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절을 나누어 프레이징을 구분하는 구절법과 음정이 불안 할 때 소리를 잡아주는 것, 소리가 튀는 아이들을 교정 해 주는 법을 관찰하였다.

<표IV-4> 파트연습 관찰표

관찰 내용	A	B
구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을 준비하고 호흡을 적당히 분배하여 프레이징을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 하여 나눈다. (가사)
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은 좋은 소리에 대한 판단이 약하다. 대중 음악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육성소리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다. 목에 힘을 빼고 바른 소리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음정이 불안전할 때 호흡을 체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음과 입 모양, 음 위치를 맞추도록 한다. 손 기호로 손바닥 위에 소리를 담기, 연구개 들어 올리기, 피치 높이기 등을 이용한다. (그림참조)
소리가 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창연습을 통해 각 파트의 음정을 들으면서 절제하여 통일된 음질을 내도록 지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음의 위치를 맞추어 소리의 힘과 비브라토를 조절한다.

<그림 IV-3> 손 기호 사용법⁵⁹⁾



④ 전체연습

전체연습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위해 화음과 가사전달의 음악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전체연습 시에 각 파트별로 하나의 소리로 모으기 위한 화음 연습법과 인원조절 및 악곡선택을 하여 전체적인 음량과 어떻게 소리 색깔을 조절 하는지 관찰해 보았다.

<표IV-5> 전체연습 관찰표

관찰 내용	A	B
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음감을 익히기 위해 무반주로 연습 한다. (아카펠라) · 잘 안될 경우는 모음으로 연습하여 화음감과 음감을 느끼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명이 잘되며 악곡의 멜로디를 잘 살리기 위해 수시로 곡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한다.
인원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로 연습을 시키며 쉬는 시간에 따로 연습하게 한다. (소그룹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을 고루 분포시켜 각 파트의 소리를 균형 있게 조절한다.

59) 정사라, 「초등학교 합창부 지도를 위한 훈련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60~62

<p>악곡 선택 및 안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소리, 자연스런 울림을 강조하여 전임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합창단에 맞는 소리로 연주한다. · 보이기 위한 음악보다는 순수한 어린이 음색이 잘 표현 될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한다. 안무는 노래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벼운 동작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곡(1), 외국곡(3), 가곡(2) 등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보여 지는 무대가 많기 때문에 화려한 곡과 안무를 많이 사용한다.
-------------------------------	--	---

3. 물리적 측면

1) 합창 단원선발

합창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지휘자라면 어떠한 사람이 합창단원으로 적합할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합창단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마다 그 기준을 설정함이 중요하다.

전문합창단의 경우라면 음정이 나쁜 학생들은 입단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합창단일 경우는 가창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합창단의 경우 노래를 못 부른다고 제외시켜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에게 노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합창단원 선발에 있어 모집인원과 오디션 유·무관계, 선발 방법과 단원구성을 살펴보았다.

<표IV-6> 물리적 요건 관찰표

관찰내용	A	B
모집인원	25명 (교육반30명)	24명 (교육반 11명)
오디션곡	자유곡1곡, 시창	지정곡1곡, 음역테스트, 시창
연주반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반에서 보통 4~7년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한 훈련을 받고 연주반 선발공고가 있을 때 그 오디션을 통과하여 승격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반 학생들은 합창단 경력이 적어도 7~8년 정도 되며 학생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단원으로 1~2년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연주반으로 승격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연주반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많았으며 중학생들로는 5명이 각 파트의 고루 분포 되어 있었다. · 합창단의 수요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아 고학년이 적다는 문제 원인을 제시 하기도 했으나 신입 단원들이 1~2년 동안 기량을 연마 해서 연주팀에 승격 되어 활동을 하다보면 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반 아이들은 엄격한 오디션과 훈련 과정으로 뽑힌 아이들이라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했으며 연주 실력도 아주 뛰어났다. 	<p>들의 음악 성장력이 눈에 띄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됨을 강조하였다.</p>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반은 남자3명, 여자 22명, 총25명, 정단원이 있고 교육반은 남자, 여자 합해서 3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반에서는 음악의 관심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오디션은 자유곡 1곡으로 선곡한다. 시험과정도 연주반 보다 까다롭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반은 남자3명, 여자 21명 총24명, 정단원이 있고 신입반에서는 남자, 여자 합해 14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2) 평가

평가는 지휘자의 일방적인 지목과 음악적 재능만을 강조하여 선별하기보다, 객관적인 평가표를 통해 공정성을 두고 각 합창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그래서 관찰내용으로 오디션과 개인평가표 여부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표Ⅳ-7> 오디션, 개인평가표 유·무관계

합창단	A	B
오디션	O	O
개인 평가표	O	X

다음은 A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악평가표이다.

<그림Ⅳ-4> A합창단의 성악평가표

개인 성악평가표

단원이름.....(학년)

성악평가 곡목 리스트

1.

2.

평가기준(A,B,C)

1. 음악성(Musicianship)

a. 음정 (note & pitch)

b. 리듬 (rhythm)

c. 템포 (tempo)

d. 악상 (dynamics)

e. 음악적 예민성 (musical sensitivity)

2. 발성 (Vocal Technique)

a. 초점 (focus)

b. 호흡 (breath management)

c. 유연성 (flexibility)

d. 레가토 (legato)

e. 음질 (quality)

f. 발음 (diction)

3. 예술성 (Artistry)

a. 표현 (expression)

b. 내면적 흐름에 대한 느낌 (spirit of song)

지도교사 평가.....

지도교사 소견.....

A합창단의 성악평가표는 음악의 기본개념과 발성적인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평가했으며,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지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졌다. 교육반에서 연주반까지의 과정에서 각각의 선생님들의 견해와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합창지도자는 이와 같이 합창단에서 평가용 평가표를 기록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의 음악적 성장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습환경

연습에 앞서 연습하는 공간의 환경이 중요한데 바이올라 대학의 윌리엄 락(Rehearsal Facilities and Equipment Preparations)의 연습을 위한 시설과 준비도구⁶⁰⁾글에서 나오는 준비도구로 두 곳 합창단과 비교해 보았다.

<표IV-8> 연습 도구표

합창단	연습준비																
	넓은 공간의 연습실	노래하기 좋은 공명	통풍과 환기	악보 읽기에 적당하 조명	조율된 피아노와 의자	보면대와 지휘단	시계 (단원 뒤편에)	단원들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큰 거울	연필과 연필깎기	악보와 인쇄물을 넣을 파일 홀더	오선 첼판과 백목	공지 사항 게시판	휴지통	마실 수 있는 물	간단한 비상약품	녹음기와 스피커	열린문 (일찍 오는 단원을 위해)
A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B	O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60) www.wvchoir.or.kr, 김희철, 「어린이 합창지도방법」.

다음으로는 합창단마다 연습환경으로 특이한 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표IV-9> 연습환경 비교표

합창단	관찰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의 전시물을 시각자료로 사용하였다. <p>예를 들면 다른 파트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는가, 지휘자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자기 파트의 음정을 잘 내고 있는가 등의 문구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수정 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이었다.</p>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공간과 연습실, 방음시설이 좋고, 녹음실까지 설치되어진 곳이었다. <p>최고의 시설 겸비는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곳에서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준비에 도움이 된다.</p>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에서 제2의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는데 꼭 필요 되어져야 할 것 중 거울은 필수품 이다. 단원들의 자세, 호흡, 발성을 교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B합창단에서는 거울이 없었다. 아이들 자신이 모습을 보고 수정할 방법이 없었다.

V. 결론 및 요약

1. 요약 및 결론

어린이 합창단 활동은 어린이들이 서로 소리를 내고 들으며 화음감을 배워 조화를 이루거나 자신의 소리를 줄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이 되게 한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공동체 훈련을 함으로써 서로의 음악을 즐기며 나누는 하나의 완성된 음악으로 성장시킨다. 또한 합창활동을 통해 심미적인 음악체험을 하여 풍부한 음악성을 계발하기도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은 취미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음악전공교사 부족과 인원감축으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니 합창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게 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 속에서 합창지도법을 연구하고 계발하는 일은 합창 교육의 이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몫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지도법 연구로서 이론적 배경으로는 어린이합창단의 시작, 역할을 살펴보고, 지도자의 자질과 특징을 지도자적 측면, 음악적 측면, 물리적 측면 등의 세 가지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실례로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2개의 어린이 합창단을 참관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전체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본 내용의 관찰한 내용 비교 분석 표를 제시하였다.

<표 V-1> 연구내용 비교분석표

관찰내용		A	B
지 도 자 적 측 면	-지도특징	· 지도자는 성악적 지식이 풍부하여 소리의 균형과 성부간의 조화를 강조하여 즐기기를 위한 음악을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지도자는 악곡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레파토리로 연주하였고 음악적 잠재력을 길러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음 악 적 측 면	-시창 청음	· 능력별로 그룹을 나누어 편성하였고 자체적인 평가표를 활용하여 학습 지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선생님의 설명 위주의 강의법으로 연습 시켰고 별도의 평가과정은 없었다.
	-자세	· 교사의 비언어적 지시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반복 연습하도록 지도하였다.	· 모델을 제시하여 모방하는 방법으로 지도했다.
	-호흡	·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 설명을 하고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 발상지도 -발음 -고음처리	·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사를 낭독하게 하였고, 고음에 있어서 불안감을 버리기 위해 충분한 이해교육을 시켰다.	· 입 모양을 통일시키고 신체 이완법을 강조하였다.

물 리 적 측 면	·합창리허설 ·파트연습 -구절법 -음정 -소리떨때	· 구절법은 호흡의 흐름으로 끊어서 읽고 음정이 불안정할 때는 호흡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소리가 될 때는 제창 연습으로 소리를 통일시켰다.	· 가사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여 음절을 나누었고, 손 기호를 사용하여 음정을 고정 시켰으며, 소리가 될 때는 같은 모음으로 소리의 위치를 잡아 통일시켰다.
	·전체연습 -화음 -인원조절 -악곡선택	· 무반주로 연습하였고 곡에 따라 수시로 인원 조절을 하였으며, 전임 작곡자가 합창단에 맞는 음역의 곡으로 편집하여 연주 하였다. 깨끗하고 고운 소리로 잘 표현하였다.	· 화음연습에 있어서 개인별로 소그룹 지도를 하였고 소리 질에 따라 인원을 바꾸었으며 화려하고 신나는 곡들로 연주 하였다. 악곡 선택은 지휘자의 주관적 생각으로 선곡 되어졌다.
	-선발방법	· 교육반과 연주반 2개로 나누어졌다. 시험을 통해 연주반으로 승격되는 선발방법 이었다.	· 신입반으로 선발되면 자연적으로 연주반으로 승단 되는 선발방식 이었다.
	-연습환경	· 벽에 전시물과 같은 시각 자료들이 게시 되었으며 연습실은 아이들의 공간임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가 연습환경을 위해 연습실을 소중하게 여겼다.	· 방음시설과 음량시설이 잘 견비되어 있었기에 자체 녹음실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자는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지도법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도자측면으로 선생님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습의 정의적 영역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도법을 세워나가는데 있어 지도자의 음악적 느낌과 태도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세와 분위기는 지도법의 기초가 된다. 이때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고 겸손하여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지도법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결정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도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는 지도자에게 필요하겠다. 방법을 제시 할 때도 주입식으로 하기보다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양한 지도방법을 개발하여 즐거운 음악활동으로 삶의 유익을 주어야 한다. 동료장학처럼 합창지도자들의 정기적인 세미나와 협회를 통해, 자기 스스로 장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매결연과 같은 단체들과의 지식교류를 통해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한다.

둘째, 음악적 측면으로는 시창·청음은 학년의 이해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발달심리와 학습방법을 지도자가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지도법으로 학습시킨다고 하여도 어린이의 발달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발성지도면에 있어 자세는 합창 단원의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해 모델제시를 하여 통일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그만한 실수에도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정 시켜 주어야 한다. 이 때 단원들과 가벼운 신호로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계로 모니터링을 하여 교정 할 수도 있다. 호흡은 선생님께서 이론과 원리를 배

우는 아이들이 계속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제를 제시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중요성을 인지시켜야한다. 이때 신체부위를 설명할 때 인체해부 사진 자료와 같은 시각자료가 도움이 된다. 발성지도는 어린이와 성인의 음량차이를 알고 무리하지 않는 발성으로 연습시켜야한다. 즉 두성공명으로 소리의 전환점이 숙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발음의 위치, 입 모양 등을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열중해야 한다. 합창리허설에서 파트연습은 제창으로 소리를 통일시키고 음정의 위치, 소리방향을 잘 잡아주도록 지도해야한다. 전체연습은 다른 파트에 영향 받지 않도록 화음감을 기르기 위해 무반주로 연습하여 음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물리적 측면으로 합창단원선발은 지휘자의 일방적인 지목과 음악적 재능만을 강조하여 선별하기보다, 객관적인 평가표를 통해 공정성을 두고 각 합창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연습환경으로는 합창에 있어 소리 만들기가 중요하므로 피아노 조율을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연습시간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충분한 연습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같은 자원 봉사자들이 필요하며 국가가 음악활동 사업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강신의. (1980). 「소년소녀 합창 지도법」. 정음서림.
이택희. (1986). 「가창발성법」. 기독교음악사.
변정자. (1988). 「음악·교육 및 이론과 실제」. 삼호출판사.
노수채. (1992). 「발성에 있어서 Vocalizzi 연구」.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홍수. (1993).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김혜정. (1997). 「성악박사 김혜정의 발성법 강의노트」. 작은우리.
이동훈. (1997). 「합창지도법」. 동진음악출판사.
(1998). 「소년 소녀 합창지도법」. 동진음악출판사.

2. 정기간행물

- 유병무. (1975). 「교회음악 통권2호」. 교회음악사.
김경희. (1996). 「아동합창교육의 범위와 방법론」. 음악교육연구 제5집
CHOIR&ORGAN (2004). 7~11월호.

3. 인터넷 검색

www.wvchoir.or.kr 김희철. 「어린이 합창지도방법」.

3. 번역서

- Charles Leonhard & Robert W. House. 안미자(역). (197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개정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Holst.I, 윤학원 역.(1976). 「합창지휘 입문」. 세광음악출판사.
- Victor Fuchs. 이상춘 역 . (1981). 「발성기법」. 세광출판사.
- Lisa Roma, 오현명 역. (1987). 「발성의 고학과 기법」. 음악예술사.
- Michael L. Mark.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공역.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F, HASSEMANN and W, EHMANN, voice Building for Choirs. 김도수 역. (1994). 「합창발성의 실제」. 미완성출판사.
- Ivan Trusler. Walten Ehret공저, 전성환역. (1999). 「성악의 기능적 훈련」. 음악춘추사.

4. 국내 학위 논문

- 차영희. (1994) 「합창 지도의 실제와 리허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춘호. (1997), 「어린이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발성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성악전공.
- 정사라. (1997). 「초등학교 합창부 지도를 위한 훈련 방안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영민. (1997). 「지휘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정. (1998).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위한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아. (1999). 「합창지도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문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이경. (1999). 「효율적인 합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 희. (2000).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합창발성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조인실. (2000). 「소그룹 합창을 활용한 효과적인 합창부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두현. (2001). 「효율적인 합창지도와 경영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The Study on Guidance Methods of Children's Choir

Mi Kyung, Kim

Music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Children can experience a pleasure to sing and a beautiful harmony by a choral activity. The choral activity is very effective on inducing co-working mind and enhancing community spirit as making children participate voluntarily in the activity.

However, there are many practical problems. The problems are a shortage of children's chore in quantity and a lack of education about teacher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let chore guidance use with the comparing of two chore that were educated systematically and analyzing the effect on guidance methods.

As a theoretical analysis, beginning of chore and role of chore are considered by previous theories. Also, this study shows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ree dimensions about chore – dimension of leadership, music, physical environment.

First, the dimension of leadership is teacher's quality and character. To enhance teacher's musical ability, it is very important that teachers give and take information based on

friendly relationship. Also, teachers should guide children to improve skills and personality with balance.

Second, the factors of the musical dimension are ability to comprehend a musical note, hearing a sound, vocalization guidance, chorus rehearsal. To develop the musical dimension, we need guidance methods that can instruct children effectively. We can educate children effectively in musical aspect as using an objective assessment and cultivating teachers of talent. The contents of education are posture-correction, breathing, vocalization guidance, chorus rehearsal. For posture-correction, it needs to show good model, give children training repeatedly. And teachers should create sign about preparing practice and improving posture-correction with indirect behavior. Breathing can strengthen children's abdominal muscles by showing specific examples and correcting directly. In the aspect of vocalization guidance, in order to pronounce correctly when children make a high sound, Teachers should guide children to use a vowel for words-reading and head voice. And Chorus rehearsal is divided into part-practice and overall-practice.

Third, Physical aspect consists of selection and assessment of chore-member and environment for practice. For selection of chore-member, it is not to select with musical talent and teacher's unilateral screening but to select an objective evaluation table. Also, it needs a fully applanced musical rooms and tools for pleasant practice environment.